

# 일부지역 대안학교 학생의 구강보건의식 행태 조사

## A Survey Study on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s in Alternative School Students

이재라\*, 이흥수\*\*

목포과학대학\*, 원광대학교\*\*

Jae-Ra Lee(jaeriya@hanmail.net)\*, Heung-Soo Lee(smagn@wonkwang.ac.kr)\*\*

### 요약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일반학교 학생이 아닌 특성화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의식행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다.

1. 학생들의 잇솔질 시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저녁식사 후에 잇솔질을 하는 학생이 29.5%로 가장 많았고, 우식예방을 위한 설탕함유 음식 섭취제한 여부에 관한 결과,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학생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에 관한 결과, 이웃과 가족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는 학생이 72.0%로 가장 많았다.
2. 학생들의 1일 평균 잇솔질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3회 실시하는 학생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 $p<0.01$ ), 성별( $p<0.01$ ), 등하교 방법( $p<0.05$ ), 경제적 상태(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학생들의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용한다는 학생이 64.5%로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은 고등학교에서 높았으며( $p<0.01$ ), 경제적인 상태(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학생들의 과자 등 간식 섭취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하루에 2-3회 37.7%, 1번 34.6%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상태(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음료 섭취횟수의 결과는 마시지 않음 38.0%, 1번 37.7%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학년( $p<0.01$ ), 경제적 수준( $p<0.05$ )에 따라 음료섭취의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중심어 : | 대안학교 | 학생 | 구강보건의식행태 |

### Abstract

This study was survey about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s with alternative school students results are as follow.

1. As a result of this study, toothbrushing period was the largest with 29.5% in students of doing 'after dinner.', The appearance of taking food of containing sugar for preventing caries was the largest with 53.3% in students who responded as saying of 'tending to be not so.', A path of acquiring information on oral health knowledge was the highest with 72.0% in neighbor and family.
2. A review of Toothbrushing frequency per day, this was the largest with 45.2% in execution with 3 times, There were difference depending on grade, sex, a path of go to school, come home from school, financial status.
3. A review of the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this was the largest with 64.5% in students who used it, There were difference depending on the higher school year in the high school, financial status.
4. as a result of taking snack of students, it was similar to two or three times with 37.7%, one time with 34.6% per day, there was difference depending on financial status. taking drink was similar to non-drink with 38.0%, one time with 37.7%, there were difference depending on grade, financial status in a statistics

■ keyword : | Alternative School | Student |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s |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교육의 획일성과 경직성, 비인간화, 경쟁 및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로 생겨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증가[1]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부적응과 중도탈락의 증가로 이들을 사회적 통합차원의 해결방안으로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이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여러 형태로 유형화되고 개발되면서 관심과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2]. 이들 대안학교의 교육활동은 일반계 학교들의 교육활동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중 각종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지식위주보다 인성중심의 교육활동이 강조되는 면에서 학생들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3]. 현재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구강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특히, 12세 아동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2006년 조사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그 감소폭이 2010년 마지막 조사에서는 다시 정체되고 있었으며, 치석부착자율은 12세에서 30.2%이었고, 15세에서 43.6%로 치주질환 상태는 치아우식증 관리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아직까지 개선의 정도가 약하고 오히려 치주질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4]. 이렇듯 구강건강을 악화시키는 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 및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의 개발과 구강건강의 기틀이 되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이 필요하며, 이 등[5]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강요했다. 특히,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강진료수요를 최소로 줄이고 학교인구의 구강건강수준을 최고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구강보건사업은 성인보다는 학동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을 때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학생이 배우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보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추후 성인이 되었을 시 생활화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이다[6]. Redmond 등[7]은 실질적으로 학교보건교육을 통하여 구강병에 대한 지식의 향상과 잇솔질 기간의 개선을 가져왔고 이것은 구강위생의 개선과 잇몸출혈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렇듯 구강

보건행동유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동기유발이 있어야 만이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교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대안학교의 차별화된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3]으로 판단된다. 이에 저자는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인식 행태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전남지역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초, 중, 고학생 328명이었으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무응답 항목이 있는 7명을 제외한 321명을 분석하였다.

### 2.2 연구방법

설문 내용은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설문문항을 기반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였으며, 일일 잇솔질 시기, 일일 평균 잇솔질 횟수, 사용하는 보조구강위생용품, 간식섭취 횟수, 음료섭취 횟수, 우식예방을 위한 설탕함유 음식 섭취제한 여부,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등으로 구성하였다.

### 2.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ver 14.0)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일 평균 잇솔질 횟수,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 간식섭취 및 음료섭취 횟수 등에 대해 카이제곱검정법(chi-square test)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성적

### 3.1 일반사항

연구대상자 총 321명 중 남학생이 62.3%로 절반 이상

을 차지하였으며,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52.0%로 가장 많았고, 등하교 방법은 자택이 54.5%, 기숙사 45.5%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경제적 상태는 ‘중’의 응답에 6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상’ 30.6%, ‘하’ 8.7%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00 62.3
	여	121 37.7
학년	고등학교	167 52.0
	중학교	64 19.9
	초등학교	90 28.1
등하교방법	자택	175 54.5
	기숙사	146 45.5
경제적 상태	상	98 30.6
	중	195 60.7
	하	28 8.7
전 체	321	100

### 3.2 잇솔질 시기

연구대상자의 잇솔질 시기는 저녁식사 후에 하는 학생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식사 후 26.5%, 점심식사 후 25.2%, 간식 후 10.3%, 아침식사 전 7.1%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잇솔질 시기#

# :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잇솔질 시기	아침 전	71 7.1
	아침 후	266 26.5
	점심 전	1 0.1
	점심 후	253 25.2
	저녁 전	8 0.8
	저녁 후	296 29.5
	간식 전	4 0.4
	간식 후	103 10.3
전 체	1002	100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일 평균 잇솔질 횟수

1일 잇솔질 횟수는 ‘1일 잇솔질 3회’라고 응답한 학생이 45.2%로 가장 많았고 ‘4회 이상’ 31.5%, ‘1~2회’ 2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생이 하루 잇솔질 횟수가 1-2회라는 응답이 많았다(p<0.01).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잇솔질 횟수 4회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p<0.01). 등하교 방법에서도 1일 잇솔질 3회에서 기숙사 생활 학생보다 자택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일 평균 잇솔질 횟수

구분	1일 평균 잇솔질 횟수 N(%)				계	x <sup>2</sup>	p
	1~2회	3회	4회 이상				
학년	고등학교	24 (14.4)	85 (50.9)	58 (34.7)	167 (52.0)	37.88	0.000**
	중학교	33 (51.6)	21 (32.8)	10 (15.6)	64 (19.9)		
	초등학교	18 (20.0)	39 (43.3)	33 (36.7)	90 (28.0)		
성별	남	58 (29.0)	86 (43.0)	56 (28.0)	200 (62.3)	9.79	0.007**
	여	17 (14.0)	59 (48.8)	45 (37.2)	121 (37.7)		
등하교 방법	자택	32 (18.3)	90 (51.4)	53 (30.3)	175 (54.5)	7.75	0.021*
	기숙사	43 (29.5)	55 (37.7)	48 (32.9)	146 (45.5)		
경제적 상태	상	36 (36.7)	34 (34.7)	28 (28.6)	98 (30.5)	15.66	0.004**
	중	36 (18.5)	97 (49.7)	62 (31.8)	195 (60.7)		
	하	3 (10.7)	14 (50.0)	11 (39.3)	28 ( 8.7)		
전 체	75 (23.3)	145 (45.2)	101 (31.5)	321 (100)			

\*p<0.05, \*\*p<0.01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조용품 사용여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조용품 사용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용한다' 64.5%로 '사용하지 않는다' 35.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따라서 학년이 높은 고등학교에서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한다가 높았으며(p<0.01),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4].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조용품 사용여부

		구강보조용품사용 N(%)			χ <sup>2</sup>	p
구분		사용한다	사용안함	계		
학년	고등	142 (85.0)	25 (15.0)	167 (52.0)	64.15	0.000**
	중	27 (42.2)	37 (57.8)	64 (19.9)		
	초등	38 (42.2)	52 (57.8)	90 (28.0)		
성별	남	126 (63.0)	74 (37.0)	200 (62.3)	0.51	0.474
	여	81 (66.9)	40 (33.1)	121 (37.7)		
등학교 방법	자택	116 (66.3)	59 (33.7)	175 (54.5)	0.54	0.461
	기숙사	91 (62.3)	55 (37.7)	146 (45.5)		
경제적 상태	상	49 (50.0)	49 (50.0)	98 (30.5)	13.05	0.001**
	중	139 (71.3)	56 (28.7)	195 (60.7)		
	하	19 (67.9)	9 (32.1)	28 (8.7)		
전 체		207 (64.5)	114 (35.5)	321 (100)		

\*\*p<0.01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자 등 간식 섭취횟수

		과자 등 간식섭취 N(%)				χ <sup>2</sup>	p
구분		먹지않음	1회	2~3회	계		
학년	고등학교	42 (25.2)	66 (39.5)	59 (35.3)	167 (52.0)	6.86	0.143
	중학교	20 (31.3)	23 (35.9)	21 (32.8)	64 (19.9)		
	초등학교	27 (30.0)	22 (24.4)	41 (45.6)	90 (28.0)		
성별	남	61 (30.5)	64 (32.0)	75 (37.5)	200 (62.3)	2.49	0.287
	여	28 (23.1)	47 (38.9)	46 (38.0)	121 (37.7)		
등학교 방법	자택	54 (30.9)	59 (33.7)	62 (35.4)	175 (54.5)	1.96	0.374
	기숙사	35 (24.0)	52 (35.6)	59 (40.4)	146 (45.5)		
경제적 상태	상	40 (40.8)	19 (19.4)	39 (39.8)	98 (30.5)	22.63	0.000**
	중	43 (22.0)	76 (39.0)	76 (39.0)	195 (60.7)		
	하	6 (21.4)	16 (57.2)	6 (21.4)	28 (8.7)		
전 체		89 (27.7)	111 (34.6)	121 (37.7)	321 (100)		

\*\*p<0.01

3.5 우식예방을 위한 설탕함유 음식섭취제한 여부

연구대상자가 우식예방을 위한 설탕함유 음식 섭취 제한 여부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53.3%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9.9%, '그런 편이다' 18.4%, '매우 그런 편이다' 8.4% 순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우식예방을 위한 설탕함유 음식 섭취제한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그런 편이다	27	8.4
그런 편이다	59	18.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1	53.3
전혀 그렇지 않다	64	19.9
전 체	321	100

3.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자 등 간식 섭취횟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자 등 간식 섭취횟수는 '하루에 2~3회' 37.7%, '1번' 34.6%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먹지 않음' 27.7%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에 따라 과자 등 간식 섭취횟수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6].

3.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료 섭취횟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료 섭취는 '마시지 않음' 38.0%, '1번' 37.7%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3회' 24.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은 '마시지 않음'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중학교 학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료 섭취횟수

구분		음료섭취 N(%)				$\chi^2$	p
		먹지않음	1회	2~3회	계		
학년	고등학교	85 (50.9)	50 (29.9)	32 (19.2)	167 (52.0)	30.41	0.000**
	중학교	10 (15.6)	29 (45.3)	25 (39.1)	64 (19.9)		
	초등학교	27 (30.0)	42 (46.7)	21 (23.3)	90 (28.0)		
성별	남	73 (36.5)	73 (36.5)	54 (27.0)	200 (62.3)	2.11	0.348
	여	48 (40.5)	48 (39.7)	24 (19.8)	121 (37.7)		
등하교 방법	자택	75 (42.9)	70 (40.0)	30 (17.1)	175 (54.5)	11.03	0.004**
	기숙사	47 (32.2)	51 (34.9)	48 (32.9)	146 (45.5)		
경제적 상태	상	30 (30.6)	34 (34.7)	34 (34.7)	98 (30.5)	11.49	0.022*
	중	78 (40.0)	75 (38.5)	42 (21.5)	195 (60.7)		
	하	14 (50.0)	12 (42.9)	2 ( 7.1)	28 ( 8.7)		
전 체		122 (38.0)	121 (37.7)	78 (24.3)	321 (100)		

\*p<0.05, \*\*p<0.01

생 및 초등학교 학생은 ‘1회’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등하교 방법에 따라서는 기숙사 학생에 비해 자택에서 다니는 학생이 음료섭취를 마시지 않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음료섭취의 횟수가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 7].

### 3.8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이웃, 가족’이라는 응답이 72.0%로 가장 높았고 ‘치과의사’ 20.6%, ‘신문, 잡지’ 7.2% 순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정보습득경로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강보건지식 정보를 얻는 방법	TV, 라디오	1 0.3
	신문, 잡지	23 7.2
	이웃, 가족	231 72.0
	치과의원	66 20.5
전 체	321	100

## IV. 총괄 및 고안

국민의 경제적인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졌다. 특히 학생 연령층에서는

신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치주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탄수화물 및 간식의 빈도가 늘어나 치아우식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구강관리를 통한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8]. 또한 건강한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필요한 모든 예방처치와 치료가 시행되어야 하며 공중보건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강보건교육활동이 이행되지 않으면 구강병 예방사업이나 구강병 치료사업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강보건교육은 가장 중요한 공중구강보건사업이라 할 수 있다[9]. 그러므로 선행연구의 일반학교 학생들에 관한 연구 자료와 차별화된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안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과 행동에 관한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구강보건 인식도와 태도를 파악하여 학교구강보건 사업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구강보건교육모형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이 6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학년별로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건교육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 사료되었다. 등하교 방법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택 54.5%, 기숙사 45.5%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경제적인 상태는 ‘중’ 60.7%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가 잇솔질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저녁식사 후가 29.5%로 가장 많았다. 1일 평균 잇솔질 횟수로는 1일 잇솔질을 3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으나 유[11]

와 장[12]의 연구에서는 1일 잇솔질 2회 하는 학생이 가장 높았던 연구와 비교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 43.0%에 비해 여학생 48.8%가 잇솔질 3회에 많다는 결과는 몇몇 연구에서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가 여자가 남자보다 잇솔질을 많이 한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13-15]. 연구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보조구강위생용품으로는 양치용액 23.4%로 학년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상태가 '중' 이상 일수록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자 등 간식 섭취횟수 '하루 2~3회' 37.7%, '1번' 34.6%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노 등[16]의 연구에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탄수화물 중심의 식품을 주요간식으로 선택하고 '일일 1회 이상 섭취'를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인 반면에 홍 등[1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학생은 3-4일에 한번 간식을 섭취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우식예방을 위한 설탕함유 음식 섭취여부는 절반정도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53.3%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우식성 식품의 섭취를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식이조절 교육과 간식 후에 잇솔질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대부분이 '이웃, 가족'이라는 응답(72.0%)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유 등[11]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및 정보를 TV나 라디오 등 매체에서 얻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대안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는 대체로 학년과 경제적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타인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외모와 이성에 관심을 갖는 시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정기적인 학교 구강검진 및 가정에서의 정기 치과방문을 통해 얻은 구강보건지식은 단순한 동등완화 해결이 아닌 심미치료(교정치료 및 미백)부분에서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태도 및 행동의 변화될 수 있도록 학교구강보건교육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지역의 대안학교 학생만을 편의 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여 얻은 것이므로 조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안학교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학교 학생들의 구강보건행태에 대한 연구가 아닌 특성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결과는 학교구강보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V. 결론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인식행태를 조사하여 학교구강보건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전남지역 대안학교 학생 32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생들의 잇솔질 시기는 저녁식사 후에 하는 학생이 29.5%로 가장 많았다.
2. 학생들의 1일 평균 잇솔질 횟수는 3회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 $p<0.01$ ), 성별( $p<0.01$ ), 등학교 방법( $p<0.05$ ), 경제적 상태(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학생들의 우식예방을 위한 설탕함유 음식 섭취제한 여부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학생이 53.3%로 가장 많았다.
4. 학생들의 과자 등 간식 섭취횟수는 하루에 2-3회 37.7%, 1번 34.6%로 비슷하였으며, 경제적 상태(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음료 섭취횟수는 마시지 않음 38.0%, 1번 37.7%로 비슷하였으며, 학년( $p<0.01$ ), 경제적 수준( $p<0.05$ )에 따라 음료섭취의 횟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학생들의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는 사용하는 학생이 64.5%로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은 고등학교에서 높았으며( $p<0.01$ ),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6.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이웃, 가족 이 72.0%로 가장 높았다.

참 고 문 헌

[1] 홍기순,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신앙과 학문, 제15권, 제3호, pp.327-356, 2010.

[2] 신효진, 노충래,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의 문제행동 비교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7권, pp.199-229, 2007.

[3] 양유승,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특성화 대안학교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비교*,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 보건복지부,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요약본, pp.111-112, 2010.

[5] 이정화, 전은숙,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학교 담임교사의 구강보건인지도 및 지지도 조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7호, pp.244-252, 2010.

[6] 구성희, 김무식, 김병수, 백종민, 신두만, 윤희중, 이정경, 장경자, 최경임, *공중보건학*, 고문사, 2003.

[7] Redmond, Blinkhom, Kay, Davies, and Worthington, “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a School-based Dental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Adoles,” J Public Health Dentistry, Vol.59, No.1, pp.12-17, 1999.

[8] 김설희, 구인영, 허희영, 박인숙, “일부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구강보건경험과 구강보건교육 인지도 조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제7권, 제2호, pp.105-113, 2007.

[9] 김영경, 정재연, 한수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구강보건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한국치위생학회지, 제3권, 제1호, pp.45-50, 2003.

[10] 신선정, 안용순, 정세환. “한국 청소년의 구강건강행태와 사회경제적지위의 연관성”, 대한구강보건

학회지, 제32권, 제2호, pp.223-230, 2008.

[11] 유수민, 안금선, “고교생들의 구강보건의식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 제3권, 제1호, pp.23-31, 2003.

[12] 장중화, “청소년의 식이 심리 사회적 요인과 식습관 및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간의 관련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6권, 제4호, pp.23-33, 2009.

[13] 서은정, *건강행위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성,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4] 이태현,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동*,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5] 윤정안, 조규성, 채종규, 김종관, “서울 경기지역 주민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치주과학회지, 제19권, 제1호, pp.89-109, 1989.

[16] 노희진, 최충호, 손우성, “청소년의 구강보건행태와 구강보건교육의 연관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 32권, 제2호, pp.203-213, 2008.

[17] 홍민희, 정미애, “강원지역 일부 고등학생들의 식습관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pp.222-231, 2009.

저 자 소 개

이 재 라(Jae-RaLee)

준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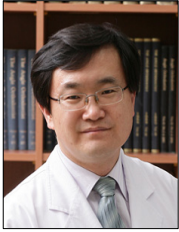


• 2009년 ~ 2011년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이 흥 수(Heung-Soo Lee)

정회원



- 1993년 ~ 2011년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치의학박사)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